



일도2동의 꿈

■ 발행처 : 일도2동주민자치위원회
 ■ 발행인 : 김두경 ■ 편집인 : 임일순
 ■ 발행일 : 2019년 6월 1일
 ■ 편집디자인 : 고려인쇄
 ■ (우) 632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28(일도2동)
 ■ 전화 : (064)728-1529 ■ 팩스 : (064)723-0823



김두경
주민자치위원장

일도2동주민센터 청사·행복주택 "어떻게 할것인가?"

일도2동주민센터복합건물은 개인의 이익과 불편을 초월하여 지역주민 모두의 편의와 동직원의 업무편리성, 주차장확보와 주변상권과의 연계 등 지역민 모두의 이익과 편리를 위한 건물이 되어야 한다.

기호지세(騎虎之勢)라면 남의 일처럼 방관하거나, 속수가 많으면 국수가 수제비된다는 속담처럼 중구난방(衆口難防) 식으로 뒷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일도2동민 모두가 주도적으로 지역민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관철(貫徹)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의 시작이나 중간, 혹은 일이 완결된 후에 누구를 탓하거나 욕하는 것은 쉬운일이나, 내가 욕을 먹더라도 지역민을 위한 일에 매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일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의 책임과 의무라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철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주민자치위원의 권리요 기쁨이라 생각하자.

현재 일도2동 주민센터건물은 1983년 소방서 건물로 준공되어 사용하다가 1992년에 소방서가 이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 건물을 일도2동 동사무소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소방서 건물로 단단하게 짓다보니 준공된 지 36년이 됐지만 안전도 검사에서 B등급으로 나와 재건축은 어려운 상황이고, 일도2동 인구가 35,000명이어서 민원인 불편과 주민센터로서의 복지 서비스는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17년 2월 5일 주민자치위원회와 12개 자생단체에서 청사를 재건축함과 동시에 행복주택 건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시.도에 정식 건의했다.

이어 2017년 2월 24일 복합건물 개발 검토 요청에 따라 LH공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2017년 5월 주거복합 건물 제안공모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2018년 하반기 지자체 공모선정 및 설계착수, 2018년 하반기 사업승인 및 2019년 하반기 착공, 2022년 상반기 입주예정으로, 행복주택은 취약계층 및 어르신, 대학생, 신혼부부 중심으로 입주자격이 주어져 인구유입과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4월 설계도면도 없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자(주최자?)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 중구난방으로 나오면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원래는 주민센터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주도해야 하나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라도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2019년 4월 정기회의에서 주민센터청사 현장방문건을 심의하고, 4월25일 까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장방문을(이도2동, 삼도2동 주민센터) 실시하고 4월25일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2019년 4월 25일 임시회의에 자치위원 29명, 도청3명, LH공사2명, 린건축2명이 참석하여 설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검토를 실시하고, 도청, LH공사, 린건축과 지속적인 협

의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2019년 5월 7일 설계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 건축사 4명의 검토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 정기회의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한 설계검토요구안을 등에 제출하여 자생단체들과 설계검토 안을 공유하기로 의결했다.
 앞으로 관내 자생단체장들과 협의 및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를 갖고, 우리동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주민센터복합건물이 되도록 중지(衆智)를 모아야 할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변화를 포용하고 기회로 활용하며,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성공한 공을 동료들에게 돌린다

더불어 동료나 다른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 한다
 항상 유익한 무언가를 읽고 기쁨을 표출함은 당연하리라.



일도2동주민센터 청사·행복주택 건립 주민 공청

나의 제언

주민센터와 행복주택 신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이호성
주민자치위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여 외국으로부터 원조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후진국가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하며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는 것은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그러나 막상 뒤돌아서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도우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희망하는 의, 식, 주 문제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문제는 큰 비용이 필요한 만큼 정부에서도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2013년부터 취약계층(주거약자, 취업준비청년, 대학생 등등)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행복주택건설을 추진했고 2016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일부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진척이 늦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겐 꼭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에겐 다소의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행복주택 건설이 우리 일도2동 지역에 주민센터, 행복주택 복합 건물로 신축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그리고 이러한 개발행위에 대한 의견권을 행사하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이 지면을 빌어 몇 가지 제 의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1. 기존 일도2동 주민센터 부지에 조성되는 신축건물인 만큼 미래를 준비하는 기능에 맞춰서 만족할 수 있는 공간과 동선이 건축설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 행복주택 입주자를 위한 별도의 주차장 개설은 물론 넉넉한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장범이나 행복주택 입주자 조건에 명시된 규정을 적용해서는 입주민간 혹은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합니다)
3. 현행 건축법상 용적률이 1,000%이하 인데 300% 밖에는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 ㉠ 현재 30m인 고도제한을 40~45m로 완화하여야 합니다.
 - ㉡ 기존 건축예상면적에서 증설을 계획하여 실시설계

에 반영하고 주민센터 사용 층을 3층에서 4층까지로 늘리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 증설되는 건축면적만큼 증가하는 건축비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주거용 면적을 16㎡(구,4.84평)에서 20㎡(구,6.05평)이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멀리서 보면 남의 일일수도 있겠지만 건축이 완공된 후에는 결국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관계자는 물론이고 제주도청 관계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그리고 건축설계회사 분들은 일개 건축물로 생각지 마시고 미래를 위한 건축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지면소개

- 1면 _ 일도2동주민센터 청사·행복주택 '어떻게 할것인가?' · 김두경 / 나의 제언_주민센터와 행복주택 신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 이호성
- 2면 _ 오피니언_클럽 '버닝썬' 마약사건이 주는 교훈 - 마약퇴치 영원한 숙제인가 · 고광연 / 기고_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 이화
- 3면 _ 기고_선진사태 탐방을 마치면서 · 임일순 / 기고_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 고재민
- 4면 _ 자생단체_바르게살기운동위원장 "기초질서 지키기 온 시민이 관심 가져야" · 강진중 / 기고_환경정비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 김형준 / 주민자치위원회 생생중계실
- 5면 _ 관내학교 이모저모 6면 _ 사람과 사람들 7면 _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들꽃_큰구슬봉이, 꽃창포 · 고재민 8면 _ 알림 / 홍보

오피니언



고 광 언
(사)제주 증독예방교육원장
증독전문가

클럽 ‘버닝썬’ 마약사건이 주는 교훈

- 마약퇴치 영원한 숙제인가 -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마약류 투약 사건이 일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마약류 투약 사실이 주요인론에 거의 매일 보도되고 있어 국민의 체감하는 심각성이 매우 커지면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의 마약류 투약 사건이 우리에게 더욱 충격을 주는 이유는 사회 영향력이 크고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아직 가치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우상인 연예인들을 모방하여 마약류 사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일부 연예인 등 마약류 투약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데에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마약류를 구매 할 수 있는 환경

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화, 가족 해체, 쾌락추구 등 우리사회의 병리적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마약류가 확산된다면 경제적, 사회적·국가적 문제와 마약류로 인한 직접적인 건강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B형·C형 간염 등 전염성 질환도 급증할 수 있다.

또한, 마약류 투약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인간성을 상실한 폐인의 수가 증가하여 개인의 파멸은 물론이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이 정체 되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 마약류를 접하게 되면 마약류 특성상 마약류에 의존하게 되며 사용자들은 금단증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약류 사용 습관을 유지하려고 돈을 마련키 위해 각

종 범죄를 저지룰 수 있다.

즉 마약판매나 강도, 절도, 금품갈취 등 폭력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마약류 문제가 범죄 집단과 결부될 경우에는 사회전반에 대하여 대단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약류 사용을 일부 사용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사회, 국가적으로 폐해를 클 수밖에 없다.

의료비용의 증가, 범죄증가, 생산성 감소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 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가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 건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류 투약자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

고 직업군이 특수계층이나 일부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인 평범한 직장인, 동료, 지인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국가의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확고한 정책의지와 사회 내에서의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교육기관, 매스컴, 사회단체의 꾸준한 활동 및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한 그늘인 마약류의 고통 속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마약 없는 밝은 사회는 특정한 사람만의 권리나 의무가 아닌 국민모두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기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다문화>라는 이름이 참 듣기 좋았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많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용어로 많이 들려서 좋지않은 않다.

나는 2007년 제주에서 남편을 만나서 거의 1년을 연애 끝에 2008년 결혼에 골인하였다.

처음 한국 왔을 때부터 어려운 점은 별로 없었다.

결혼 전에 나는 조선족, 교포, 중국동포 중국계 한국인으로 불리었는데 결혼 후에는 결혼이민자, 다문화라는 이름 두 개가 더 붙었다.

조선족들은 한국에 오자마자 일들을 찾아서 한다.

나도 결혼 후 아이가 바로 안 생겼으면 일을 했을 것이다.

아이를 임신해 일을 할 수 없었던 덕에 제주글로벌센터에 자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얻었다. 센터에서 한글수업은 기본이고, 컴퓨터 교육, 바리스타 교육, 요리배우기, 자녀경제교육, 비즈공예, 사법통역사, 관광통역안내사, 미용기술교육 그 외에도 다문화강사 교육도

있었다. 나도 제주글로벌센터에서 다문화강사 양성교육을 받고 2010년부터는 다문화강사로 활동 했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달에 3~4번 겨우 강의를 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마저도 방학 중에는 활동을 하지 못하니 다문화강사로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라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문화강의 수업은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애들은 재밌어 하고 잘 따라주는 편이었다. 가끔 엉뚱한 질문은 받기도 한다.

<선생님, 중국사람 나쁘대요. 조선족은 더 나쁘대요, 중국은 짝퉁이래요.> 이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말한 것이다. 부정적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상하다.

다문화수업은 아이들 대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비다문화가족 학부모가 다문화교육을 받아야 좋을 것 같다.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에서 이야기 들어 보면 한국 엄마들이 우리를 무시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많이들 한다.

아이들의 편견보다는 부모들의 시선이랑 무심코 하는 얘기가 아이들도 우리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라고 모두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내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처럼 남편 월급이 5-6백이 넘는 가정들도 있다. 뉴스에서는 다문화가족, 저 소득층, 소외계층이라며 많은 지원을 한다고 종종 뉴스가 나오곤 한다.

그런데 정작 다문화가족이라고 어떤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직접적인 경제지원 등이나 비다문화가족에 비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다문화가족은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제는 바뀌나가야 한다.

물론 제주글로벌센터처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것이 특별한 혜택이라면 한국인 비다문화가족들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가 한국이 좋은 점은 어디든 정규 학교가 아니라도 다양한 교육지원을 하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은 언어, 문화교육, 정보화

교육 등에서 원주민인 한국들과 같이 교육을 받는다면 같이 따라 갈수가 없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교육지원은 단순한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살린 교육지원으로 글로벌인재를 양성한다는 개념으로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들의 의식 속에 부정적인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 대신 글로벌가족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비로소 진정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다.

- 이화(중국)



기고 선진사례 탐방을 마치면서...



임 일 순
주민자치위원회
기획홍보분과장

맑은 하늘과 따스한 햇살이 집을 나서는 여행자의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한지 4개월여 만에 떠나는 선진지 견학이라 마음이 한껏 부풀고 기대감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책임감이란 또 하나의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목적지가 강원도 지역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와는 서로 다른 문화와 풍경을 접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우리 일행 28명은 5월 23일 오전 제주공항을 출발하여 김포공항에 도착 하였고, 여행사가 준비한 관광버스를 타고 첫 번째 방문지인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주민자치위원회를 방문하기 위하여 출발 하였다.

멀리 제주도에서 온다는 소식에 신북읍장을 비롯한 자치위원 20여명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간단한 인사를 마친 우리일행은 읍사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곧바로 신북읍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우리 위원들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신북읍 현황설명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황의 설명 그리고 우리주민자치위원장과 신북읍 주민자치위원장의 순으로 인사말씀이 이어졌는데 신북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인사말 중에 "제주도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상황을 듣고 보니, 오히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보다 아주 우수한 사례들이 많아서 한번 벤치마킹하러 방문 하겠다" 고 하여 한바탕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어느 기관을 방문을 할 때에는 예의상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도 갖고 가야 해서 사전에 제주의 토속음식인 "오메기떡"을 준비했는데, 소통의 부재로 가는 도중 버스 안에서 위원님들이 사이좋게 나누어 먹어버렸으니 참으로 난감한 상태에 직면했다. 그런 와중에 위원 한분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우리 일행이 먹으려고 갖고 온 삼다수와 소주를 선물하는 것이 어떠한 제안에 일행 모두가 찬성을 하였고, 또한 전달하는 과정

에서도 입담 좋은 우리 위원장님의 재치 있는 설명으로 오히려 더 좋은 선물이 되어 버렸다. 이런 것이 전화위복이라고 하지 않을까? 신북읍 자치위원들의 전송을 받으며 헤어진 우리 일행은 소양강 댐을 관람하고 고성군 소재 통일전망대로 향하던 중 저녁때가 되어 양양군 강현면 정암2리 소재 EL호텔에서 머물게 되었다.

아침 5시가 조금 지날 즈음 눈을 떠보니 시원한 동해바다 위에 시벨건 둥근 불덩이 태양이 금방 바다 속에서 나오는 모습과, 그 앞에 고깃배 한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어서 재빨리 사진 한 장을 찍어 두었다.

사진 전문가들도 이런 장관을 한번 찍기 위해 1년을 기다린다고들 한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고성통일전망대로 출발하여 30여분 만에 도착 하였다. 통일전망대에 올라 북한지역을 보고 싶노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긴장된 마음과 통일이라는 염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 70년이라는 세월동안 분단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국민모두의 바램이기도 하지 않을까. 통일전망대 관람을 마치고 화진포 해변에 있는 김일성별장, 이기봉별장, 이승만별장을 차례로 관람하고, 거진항에서 점심으로 먹은 곤드레 비빔밥은 너무 맛있어서 기억에 남을 만 하였다.

점심 식사 후 설악산으로 이동하여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서 자연경관을 둘러보니 자연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에 우리 한라산에도 반대만 하지 말고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꽤 많은 관광수입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설악산 관광을 끝으로 2일째 여행도 마무리가 되었다.

어느새 3일째 되는 여행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황태해장국으로 아침식사를 마치고 "한반도 지형"이라는 관광명소로 잘 알려진 영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뗏목을 타고 강물 따라 한반도지형을 도는 동안 강물에 발을 담그고 관람하는 뗏목체험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 청주공항으로 출발 하였다.

이번 견학목적은 우수한 지역의 활동 상황과 여러 가지 제도 등을 확인하고 벤치마킹, 즉 우수한 사례들을 배우고 와서 그보다 더 좋은 제도로 승화 발전시키는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즐겁고 보람 있는 여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마음의 여유와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유능한 자치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

우리 일행들은 3일 동안의 견학과 체험 및 관람 등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으며, 위원들 각자의 역량을 높이고 또한 위원간의 화합을 통하여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발전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좋은 경험들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장 전국' 명성을 얻기에 충분한 절경이라고 느껴진다. 마지막 날 견학 코스는 서강변 뗏목체험이다. 한반도 뗏목마을(선암마을)은 서강의 물줄기가 한반도 지형을 만들어우리 땅을 그대로 옮겨 놓은듯한 풍경으로 서강변에 자리잡은 강변마을이다. 마을주민들은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해 뗏목체험장을 조성했다.

2008년 농촌진흥청 지정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선정되어 2009년부터 뗏목체험을 관광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다. 뗏목체험으로 쓰는 배는 쇠소각 테우체험과 달리 엔진을 걸어 운항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

기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고 재 민
주민자치위원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주민자치 역량강화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으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을 선정하고 5월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주민자치위원 25명, 주민자치센터 직원3명등 총28명이 다녀왔다. 신북읍은 인구 7,898명(3,564세대)으로 소양강 댐을 끼고 있는 마을이다.

2003년에 설립된 신북읍 주민자치위원회는 2015년부터 △기획홍보 △센터관리 △문화체육 △복지환경 등4개 분과를 운영하고있다.

23일 신북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오진호 신북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 선정을 계기로 △농촌형 주민자치회 특성을 살린 분과 구성 △주민육구 조사를 통한 의제 형성 △주민총회 개최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두경 일도2동주민자치위원장이 올해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역점 추진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궁금

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끝으로 간담회를 마쳤다. 둘째 날 코스는 고성 통일전망대 견학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통일전망대에 올라서니 금강산의 구선봉과 해금강이 지척에 보인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이루어지는 남북연결도로가 다시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전망대 길을 내려왔다.

오후에는 고성 화진포를 찾았다. 화진포에는 김일성 별장과 이승만 별장이 있다. 화진포의 성(김일성 별장)은 독일인 건축가가 지은 지하1층, 지상2층의 석조 건물로 옛 별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를 비롯해 김일성 가족의 사용했던 유품이 모형물로 만들어져 전시되고 있다.

이승만 별장은 1954년에 신축된 뒤 1961년 이후 폐가로 방치되다가 재건축하여 1999년 전시관으로 복원 되었다. 별장 내부는 유족들에게 기증 받은 물품들로 전시하여 옛 모습을 재현했다.

제주도에도 송당에 이승만 별장이 있지만 마땅한 활용을 못찾아 옛 석조건물로 남아있다. 고즈넉한 백사장과 호수를 끼고 있는 화진포의 풍경은 '별

- 자생단체 탐방 -

기초질서 지키기, 온 시민이 관심 가져야



강 찬 종

일도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장

동네 곳곳을 걷다보면 도로 위 적치물을 흔히 볼 수 있다. 좁은 도로에 무분별하게 놓여 있는 화분, 물통, 타이어 등의 적치물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주차나 차량 운행에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다. 도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규범이며 더불어 생활해야 할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작은 약속이다. 기초질서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닌 사소한 나의 행동 하나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일회용품 안 쓰기,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안하기 등을 통해 '환경질서'를 지킬 수 있고, 정지선 지키기, 불법주정차 안하기 등을 통해 '교통질서'를 지키고, 화분, 물통 등을 집이나 상가 앞에 놓지 않음으로써 '도로질서'를 지킬 수 있다.

로는 개인 사유물이 아닌 주민과 차량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이므로 개인의 편의를 위해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에서는 3대 이념인 진실·질서·화합을 바탕으로 지난 30년 동안 국민이 함께 자율적으로 기초질서 및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해왔다. 매달 1일마다 안전문화 의식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클린하우스

요일별 배출 단속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올해부터는 제주시에서 추진하고있는 기초질서 지키기(환경, 교통, 도로분야)인 「모두의 도시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여 도로질서 분야로 집중 활동하고 있으며 매달 3회씩 단속 및 정비활동을 펼쳐 현재까지 10회 수시 단속으로 약 2,392건의 적치물을 수거했다. 기초질서는 우리가 사회질서



일방적인 단속과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 혼자만의 편안함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서야 한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시민화합을 이루며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운동 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기고 환경정비 근로자분들께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김 형 준

일도2동 주민센터 주무관

환경정비 업무를 맡은지 녀달이 넘어선다.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환경정비 업무를 하다 보니 깨끗한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점을 느낀다.

우선 아침 일찍 마을안길, 공영주차장, 클린하우스 주변에 청소인력이 배치되어 쾌적한 아침을 준비하고, 환경미화원들은 전날 배출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한다.

도로변으로 나가면 가로환경 근로자분들을 만날 수 있다. 도로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출근길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신다.

시원한 물청소로 클린하우스를 깨끗하게 책임지는 클린하우스 세척팀도 빼 놓을 수 없다.

또한, 우리 일도2동에서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적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기동반원들이 관내를 돌면서 방치폐기물, 환경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 외에도 장애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참여자분들이 마을안길과 공원 내 환경정비를, 저녁이면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분들이 총 출동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에 도움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이 모인 덕분에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만큼 한분 한분이 소중하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쓰레기 종량제와 요일별 배출제를 지키며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한 덕분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깨끗한 주변 환경 덕에 기분이 좋아진다.

출근하다가, 길을 가다가 주변에 환경정비 근로자분들을 만나면 고생하신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건 어떨까?



주민자치위원회 생 / 생 / 증 / 계 / 실

4월 임시회의 개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두경)에서는 2019. 4. 25.(목) 자치위원 29명, 도청직원 3명, LH공사 2명, 린건축 2명이 참석하여 일도2동주민센터청사복합건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검토위원회를 개원키로 하다.

유스 에코-리더(Youth Eco-Leader) 클린환경체험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두경)에서는 2019. 5. 9.(목) 관내 일도초등학교 및 주민자치위원 45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아시아기후변화센터에서 클린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5월 정기회의 개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두경)에서는 2019. 5. 9.(목) 선진지 시찰 및 주민센터복합건물의 설계검토 의견을 일도2동에 전달키로 의결하다.

춘천시 신복읍 주민자치위원회 방문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두경)에서는 2019. 5. 23.(목) 신복읍주민자치위원회를 방문하여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자치에 대하여 토론하다.

불법 쓰레기 투기단속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두경)에서는 2019. 5. 29.(수) 관내 클린하우스를 순회하며 불법 쓰레기 투기단속을 실시하다.



관내학교 이모저모

인화초등학교

제21회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장기 전도 탁구대회 참가



인화초등학교(교장 송만선)는 5월 11일(토)에 제21회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장기 전도 탁구대회에 참가하였다. 평소 탁구 활동에 힘쓰던 6명의 학생들이 본 대회에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는 제주전도의 많은 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초등 저학년부, 고학년부, 학교별 단체전으로 진행되었다. 저학년부에서는 3학년 문지성 학생이 3위로 동메달에 입상했으며, 학교별 단체전 역시 접전 끝에 3위로 동메달을 수상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특히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던 고학년부에서 6학년 강운재 학생이 타 학교 학생들을 모두 이기고 당당히 금메달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6명의 학생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였으며 특히 송만선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평소 격려하며 응원해준 점이 무엇보다 효과적이었다. 본 탁구 대회를 계기로 많은 학생들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경험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는 바탕을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합창부 전도소방동요대회 2년 연속 대상 수상



인화초등학교(교장 송만선)는 '인화사랑합창단'은 2019년 5월 11일(토)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19회 전도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2년 연속 대상(1등)을 수상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도내 유치원 6개 팀, 초등학교 6개 팀이 참여하였다. 이 대회에서 4~6학년 학생 30명으로 구성된 '인화사랑합창단'은 멋진 안무와 함께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119를 사랑하는 방법을 담은 '119 사랑법'이라는 곡을 불러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119 사랑법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고, 합창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아울러 '인화사랑합창단'은 9월, 대전에서 열리는 제20회 전국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제주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동광초등학교

다문화이해교육주간 행사 실시



동광초등학교(교장 부태준)는 5월 20일(월)~24일(금)까지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주간 행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를 위한 다문화 이해자료가 안내되었으며, 각 학급 교실에서는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알아보고 세계 전통 의상 색칠하기, 다양한 분야의 다문화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생각해 보기,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눈 후 자기의 생각을 글로 쓰기 등 학년 수준에 맞는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동광초등학교 교육가족 모두가 각 나라마다의 문화가 다름을 알고 수용하며 편견 없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교내 제주어말하기대회 실시



동광초등학교(교장 부태준)는 2019년 5월 22일(수)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제주어말하기 대회를 가졌다. 제주의 문화이면서, 생활자체인 제주어를 지켜서, 보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치러진 이 대회에, 총 11팀이 참가함으로써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제주어 보전의 열기가 가득함을 입증해 주었다. 참가 학생 중 몇몇은 제법 능숙하게 제주어를 구사하여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으며 진지하게 역할에 빠져드는 끼를 발산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웃음소리 가득한 시간을 제공해 주어 재미있고 뿌듯한 대회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잊혀져가는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제주어의 아름다움과 애郷심을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본다.

일도초등학교

일도초,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일도초등학교(교장 이정미)는 2019년 4월 3일(수) 도서관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연수 및 신고의무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는 아동학대 신고의자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책무성과 대응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 용어의 정의와 유형, 아동 학대의 징후, 아동학대 신고요령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이론과 함께 실제 학교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방법과 대처법 등을 교육하였다.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참석한 교직원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일도초 '글벗 자람터 나들이' 도서관 행사 개최



일도초등학교(교장 이정미)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세계 책의 날 기념으로 '글벗 자람터 나들이' 도서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도서관 행사에서는 내가 가장 아끼는 책에 대한 사연을 받고 책과 함께 복도에 전시하여 다른 학생들도 읽을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읽은 책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향기 나는 문장으로 누름꽃 컵받침을 만드는 활동도 하였다. 또한 선생님과 함께 하는 달콤한 책읽기 행사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 이번 행사로 학교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은 독서를 즐기면서 생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해 본다.

사 / 람 / 과 / 사 / 람 / 들

**일도2동 통장협의회
대청결운동 캠페인 전개**



일도2동 통장협의회(회장 고광언)에서는 2019.04.23.(화) 17시에 통장 48명이 참여하여 그린쉼터에서 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쉼터내 잡초제거를 실시하였다.

**일도2동 방위협의회
4월 정례회의 개최**



일도2동방위협의회(회장 박경호)는 2019.04.25.(목) 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4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6.25참전용사 및 월남파병용사 위문행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3회 일도2동 동경계걷기 한마음행사
성황리 개최**



일도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문동진)와 일도2동새마을부녀회(회장 박은희)에서는 제13회 일도2동 동경계걷기 한마음행사를 2019.04.13.(토) 08:00~12:00 신산공원(구 호남석재사거리 남쪽)에서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일도2동 새마을부녀회
사랑 나눔 바자회 개최**



일도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은희)에서는 2019.05.06.(월)에 일도2동 복지회관에서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등 어려운 이웃과 지역 주민에게 국수와 고기 등을 제공하고 이웃사랑 나눔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
그린쉼터 환경 정비 실시**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위원장 강찬중)에서는 2019.04.01.(월)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그린쉼터 일대에서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벌였다.

**일도2동연합청년회
일일호프 및 동민 문화 페스티벌 개최**



일도2동연합청년회(회장 진두선)는 2019.04.06.(토) 일도2동 복지회관 등에서 '사랑의 기금 마련 2019 일도2동연합청년회 일일호프' 및 '2019 동민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의 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전개**



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한관섭)에서는 2019.05.16.(목) 고마로 일대에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점검 캠페인'을 펼쳤다.

**장애인지원협의회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 개최**



일도2동 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이승훈)는 2019.04.30.(화) 회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관내 장애인을 위해 바자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일도2동 민속보존회
제13회 동경계 걷기 한마음 행사 참여**



일도2동 민속보존회(회장 조창운)는 2019.04.13.(토) 제13회 동경계 걷기 한마음 행사에 참여하여 민속보존회 풍물패를 선두로 하여 행사의 첫길을 열며 참여자들과 함께 걷기 행사를 하였다.

**일도2동 지역자율방재단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일도2동지역자율방재단(단장 오영진)에서는 2019.05.08.(수) 20여명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서는 심정지 환자 발견 시 대응요령, 심폐소생술 이론·실습을 진행하였다.

**일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가구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도배 및 장판 자원봉사**



일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부태진, 강창근)에서는 2019.05.03.(금)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가구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혼자 생활하는 중장년층 1인가구에 도배 및 장판, 물건정리정돈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연수경로당 어르신 도내 역사문화탐방



일도2동 연수경로당(회장 김봉흠)에서는 2019.05.25.(토) 경로당회원 40명과 함께 도내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하면서 노인의 역할을 모색하고 회원들 간 화합을 다지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19년 채소류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

- 지원품목 : 3개 품목(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 지원단가 : ha당 660천원 이내
- 지원대상 : 십자화과 작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신고기간 : 2019. 6. 10(월) ~ 6. 24(월)
- 신고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 '19년 제주청년 해외배낭연수 지원사업

-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1984. 5. 24 ~ 2000. 5. 23)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1년 이상(2019. 5. 23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청년
- 연수지역 : 1개 대륙으로 한정(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 택1)
- 연수지역 : 1개 대륙으로 한정(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 택1)
- 연수 기간 : 2019년 7월 15일(월) ~ 10월 20일(일) 중 21일(3주) 이내
- 연수 목적 : 진로탐색, 해외봉사, 국제교류행사 참석 등 개인의 미래 비전 설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
 - * 단기 어학 연수 및 종교 활동과의 연계는 불가
- 지원 내용 : 연수 경비 지원(1팀당 1,000만원 범위 내)
- 접수기간 : '19. 6. 4(화) 09:00 ~ 6. 18(화) 18:00까지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www.jiles.or.kr) 온라인 접수
(인재육성사업 → 청년 해외배낭 연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확인)
- 문의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재육성부 ☎ 064) 726-9916

◆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 공모대상 : 민·공예품, 공산품 및 가공식품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구매할 수 있는 모든 관광기념품
- 공모분야 : 제주의 문화, 자연환경, 먹거리, 관광명소 등을 반영한 우수하고 매력적인 제주관광기념품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접수기간 : 2019. 6월 3일(월) ~ 6월 14일(금) 10: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064-741-8742) - 주소 :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작품설명 및 상품화실적, 작품사진
- * 참가신청서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u.go.kr)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홈페이지(www.visitjeju.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유전자감식) 유가족찾기에 따른 채혈 실시

- 채혈기간 : 2019.5.16.~8.15(3개월간)
- 채혈시간 : 월~금 (오전9시~오후5시)
- 채혈장소 : 제주시(제주한라병원 신관 3층 검진센터), 서귀포시(서귀혈연병원 2층)
- 준비물 : 신분증 지참
- 문의 : 제주4.3평화재단 (064-723-4349)

◆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위한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2019. 5. 15.(수) ~ 7. 15.(월)
- 참가자격 : 누구나
- 공모내용
 -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 제주특성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사항 등
- 응모방법 : 「제도개선 과제 제안서」 작성 제출
 - * 서식과일은 도청 홈페이지 게시 (홈)도정뉴스)도정소식)새소식 란 참고)
- 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방문 및 우편 :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팀
 - 팩 스 : 064-710-4879
 - 이메일 : lly8138@korea.kr
 - * 2019.7.15.(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2019.7.15.(월) 우편소인분까지 인정함
- 문의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T.064-710-4881, 4883)

◆ 2019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 가입대상 :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상시근로자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10명)의 5명미만, 업종별 매출액 기준 판단
- 목적물 : 소상공인 소유의 상가, 공장건물, 시설(기계), 재고자산
- 가입금액 : 상가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3천만원
- 부담비율 : 국비25%, 지방비 9%, 자부담 66%
- 피해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발생한 손해액 실손보상
- 보험사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문의 : 제주시 안전총괄과 (064-728-3013)

◆ 2019년 차고지 증명제 시행 (도전역 19.7.1.~)

- 대상차량 :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 증명차 이상
 - * 2022. 1. 1(도전역) : 도 전역 전면시행(소형·경형 자동차 포함)
 - (단, 저소득층 소유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제외)
- 차고지증명 필요한 경우 : 신차 및 중고차 구입, 자동차 소유자 주소변경(전입 신고시)
- 차종에 따른 자동차
 - 대형차 : 모하비, K9,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제어맨 등

- 중형차 : 아반떼, 엑센트, K3, 프라이드, 아이오닉 EV, 쏘울 EV 등
- 경·소형차 : 모닝, 스파크, 레이, 레이 EV 등

◆ 2019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 지원대상(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노인, 만5세이하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기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세대
- 지원방법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사용기간 : 2019.7.1~9.30)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국민행복카드 발급후 에너지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 (사용기간 : 2019.10.16~2020.4.30.)
- 신청기간 : 2019.5.22. ~ 9.30
- 지원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 이상가구
하절기	5,000원	8,000원	11,500원
동절기	86,000원	120,000원	145,000원
계	91,000원	128,000원	156,500원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문의 : 일도2동주민센터 064-728-8024,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 접수기간 : 2019.2.18.~12.31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장소 : 도내 전기자동차 판매처 및 영업점
- 보급대수 : 전기승용차 6,000대
- 보급차종 : 전기차 18종
- 보조금 지원액 : 820~1400만원
 - * 폐차 및 수출말소차 150만원 추가지원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없는제주정책과 ☎ 710-2614

◆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

- 접수기간 : 2019.2.18.~12.27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장소 : 도내 전기이륜차 접수처
- 보급대수 : 1,136대 이내
- 보급차종 : 전기이륜차 17종
- 선정기준 : 차량 사용신고순
- 보조금지원액 : 200~350만원
 - * 이륜차 사용 폐지후 구매시 20만원 추가지원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없는제주정책과 ☎ 710-2614



큰구슬봉이
큰 구슬봉이는 숲에서 자라는 2년초로, 꽃이 구슬봉이 보다 좀 더 크다고 해서 큰구슬봉이라고 한다. 5~6월에 피는 꽃은 자줏빛이 돌고 원줄기 또는 가지 끝에 종 모양의 꽃이 몇 개씩 모여 달린다.



꽃창포
꽃창포는 제주도, 전라남도 등으로 남부 지역에 자생하는 다년초로, 단오날에 머리감는 창포와 다른 식물이다. 6~7월에 피는 꽃은 적자색으로 원줄기 끝에 2~3개씩 달리며 꽃 밑부분은 연 녹색이다.

사진/고재민 주민자치위원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도

“작은 편의보다는
기초질서를 지켜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모두의 도시 프로젝트

기본

기본으로
모든 사람의
기초와 근본을
말합니다.



쓰레기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자원입니다.

올바른 주·정차는 이웃 간의 배려입니다.

도로는 사유지가 아닌 모두의 것입니다.

쓰레기
일회용품 안 쓰기
올바른 분리배출하기
쓰레기 불법투기 안 하기

주차
주변 주차장 이용, 길어서 이동하기
인도·화단보다 위 주차 안 하기

도로
상가 내 집 앞 도로 위 물건 적치 안 하기

정착주민 지원제도 홍보



정착주민지원 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조례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4. 4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조 전면 개정 : 2017.7.20

- 정착주민 관련 용어 정의
- 정착주민 등 지원
-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정착지원위원회 설치
- 정착지원센터 운영 등

정착주민 (정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정착주민의 조기 정착과 지역공동체 조성 사업

- 정착주민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 제고 교육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의 공동사업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

부서별	지원내용
지치행정과	제주정착주민 지원업무 총괄
친환경농업정책과	귀촌·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원	귀농인 교육에 관한 사항

정착주민 지원센터 안내

- 정착주민 지원 센터 운영 : 46개소(도, 행정시, 읍·면·동)
- 행정기관 내 정착주민 상담 등 전담 창구 운영 → 이주정보 제공, 생활별편의사항 수렴 및 해소 지원, 지역소통, 교류 지원 등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 사업 지원

- **목적**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등 지역 문화·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 및 지역 활력회복 도모
- **지원대상** 정착주민 지원관련 활동단체, 법인 등(공공 선정)
- **지원기준** 해당연도 예산범위내 사업 공모기준에 따름
- **사업내용** 정착주민, 지역주민 참여 마을 발전사업, 지역교류 활성화 사업 등 지역 문화 교류, 제주버로알기, 정착주민재능기부, 이주민책임사업, 지역과의 소통·홍보사업

제주정착 정보 제공

- **목적** 이주 희망자 및 정착주민들이 제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제공
- **주요콘텐츠**
 - 제주생활길잡이 : 제주도소개, 생활인원안내, 육아와 보육 등
 - 정착지원사업 : 귀농귀촌 지원사업, 정착주민 제도 운영 등
- **제주 정착정보 사이트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접속 ▶ 제주소개 ▶ 제주정착정보 (<http://www.jeb.go.kr>)

2019년 7월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제주도 전지역 확대 시행안내

차고지증명 제도란? 자가용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① 차고지증명제가 현재 제주도 동지역에 한해 중·대형 일반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 **제주도 전지역으로 확대**(중·대형 전기차 포함) 시행됩니다. (단, 경형·소형자동차(제1종 차고지자동차 포함)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② 차고지증명 대상차종

대상차종	중형	차량분류 기준	대형
승용자동차	배기량 1,600cc 이상이거나 소형제한 초과		배기량 2,000cc 이상
승합자동차	10인승 이상이거나 소형제한 초과 길이 9m 미만		30인승 이상이거나 길이 9m 이상
화물자동차	차량상 1톤 초과부터 2.5톤 미만인 것		
개인용자동차	2019. 7. 1일부터 중·대형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대용량자동차 등		

단, 소형제한 차종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승용자동차임

③ 신청절차

구분	신청·접수	차고지현장확인	증명서 발급
연령	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사무소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사무소
계정	읍면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사무소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읍면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사무소

④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및 차종별 예시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차고지증명 차종별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립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자동차 (대형 2007년 5월 1일, 중형 2017년 1월 1일 이전) - 2019년 7월 1일 현재 최초 등록된 제주 거주자동차(중형 이상) - 경형·소형자동차(제1종 차고지자동차 포함)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운수사업법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 특수 목적 차량으로서 이상 차종자동차 - 승객자동차 배차사업자 명의로 된 영업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차 : 코치, 30t 그랜저, 제네시스, 엑셀스, 제이콘 등 - 중형차 : 아반떼, 빅센트, 30t, 포커스, 아이오닉EV, 혼돌 30V 등 - 이전까지 등록 차량이 2.5톤 이하인 소형차량 : 제1종 차고지자동차 - 기타 : 카니발 코인승(대형승용), 카니발 코인승(중형승용)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도 차량관리과(☎728-3232~32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노상 적치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상가 또는 집앞 도로는 개인소유가 아닌 공공의 도로

- 중점 정비 사항**
- 도로나 보도 위 물건 진열행위, 도로변 좌판 진열행위
 - 도로변 물통·화분·페타이어, 각종 잡채물 적치행위
 - 통행불편 장애요인 및 미관저해 요소



- 단속 관련 근거**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정용 허가)
 - 도로를 정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도로에 토석, 임목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질서를 만들기 위해 제주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